

Kstat Report

2020년 7월 23일

'결혼과 출산' 관련 국민 가치관 분석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가치관 유형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유형과 결과
- 케이스탯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방법론 소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좌표 현황

- 국민들, [전통적 가족지향형]과 [개인행복 추구형] 간 대각선 분포
- 국민전체 및 성별, 연령별 평균 좌표 : 20대와 60대의 거리 가장 멀어
- 성/연령별 평균 좌표 : 남자 60대와 여자 20대 간 거리 매우 멀어
- 직업별 평균 좌표 : 학생계층만 유일하게 [개인행복 추구형] 위치
- 지역별 평균 좌표 : 호남지역이 [전통가족 지향형] 특히 강해
- 이념성향별 평균 좌표 : 큰 차이 없는 가운데 보수층 [전통가족 지향형] 높아

결혼과 가족의식에 대한 세부 응답 현황

- '결혼해 가족 이루는 것 행복' 62% / '배우자 가족 챙기는 것 부담' 51%
- '노년기 생각 시 결혼 든든' 61% / '혼자 행복 생각하면 결혼 불필요' 51%
- '결혼 시 맞벌이로 혼자보다 안정돼' 51% / '직장.집안 나쁘면 결혼 어려워' 73%
- '혼자 못하는 일, 배우자와 함께 해 좋아' 61% / '맞벌이라도 가사일은 여성이' 13%

출산과 양육의식에 대한 세부 응답 현황

- '부모되는 것 값진 경험' 74% / '결혼 즐기려면 애 안 낳아야' 17%
- '애 낳는 것이 가정생활 도움' 62% / '애 키우는 비용, 애 낳기 주저돼' 62%
- '나 닮은 애 있다는 것 행복' 63% / '아이 행복하게 자랄 것 생각 안돼' 50%
-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덜해' 28% / '애 키우느라 경력 단절 걱정'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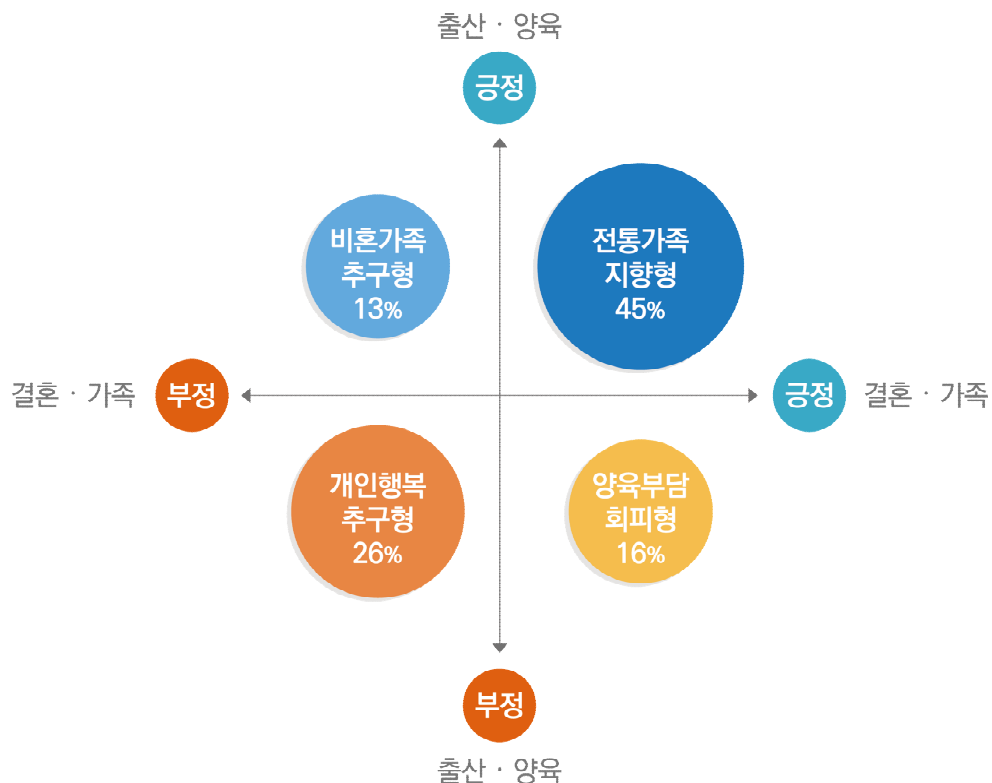
• • •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가치관 유형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유형과 결과

-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결혼·가족에 긍정적이고 출산·양육에도 긍정적인 **[전통가족 지향형]** 국민이 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역시 50%를 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는 전통적 가치관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줌
- ▶ 다음으로는 결혼·가족에 부정적이고, 출산·양육에도 부정적인 **[개인행복 추구형]**이 26%를 차지함
- 이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26%라는 큰 규모를 형성하면서 '저출산'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임
- ▶ 다음은 결혼·가족에 긍정적이지만, 출산·양육에 부정적인 **[양육부담 회피형]**으로 16%로 나타남
- 이들 역시 우리나라의 '저출산' 흐름에 일조하는 이들로 보임
- ▶ 마지막으로 결혼·가족에 부정적이지만, 출산·양육에는 긍정적인 **[비혼가족 추구형]**이 13%임
-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제도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임



- ▶ 가치관 유형별 인구특성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이 [전통가족 지향형]에 속해 있음
 - 이념성향별, 소득별로도 별다른 차이 없이 모두가 [전통가족 지향형]에 속함
- ▶ 이에 비해 [개인행복 추구형]에 속하는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 여자 30대 △학생 △미혼 계층임
 - 여자 18~20대와 여자 30대는 [양육부담 회피형]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속해 있음
-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통가족 지향형] 비중이 특히 높은 곳은 호남이고, [개인행복 추구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서울, 충청권, PK 등으로 나타남

전통가족 지향형 45%	개인행복 추구형 26%	양육부담 회피형 16%	비혼가족 추구형 13%
남자 30대	남자 18~20대		
남자 40대			
남자 5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40대	여자 18~20대	여자 18~20대	
여자 50대	여자 30대	여자 30대	
여자 60대이상			
자영업	학생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주부			
기혼	미혼		
이별/사별			
호남권	서울		
	충청권		
	PK		

Kstat Point

- ☑ 유엔인구기금(UNFPA)이 6월 30일 공개한 「2020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198위)로 나타남
 - : 합계출산율 1.1명이라는 말은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국가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
 - :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4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두배가 넘고 있음
- ☑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5.8%로 세계 평균 9.3%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발표됨
- ☑ 한편, 보고서 수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세계인구 전망 등의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인데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 수치는 이보다 더욱 심각함
 - : 통계청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구체적으로 40살을 넘긴 1980년생 기혼여성 중 아이가 없는 비중은 12.9%이고, 30대 중반인 1984년생 기혼여성 중에서 아이가 없는 비중은 34.8%에 달함
- ☑ 이번 케이스탯 조사에서도 여자 18~20대, 여자 30대는 결혼과 출산 모두에 부정적인 [개인행복 추구형]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결혼에 긍정적이지만 출산에 부정적인 [양육부담 회피형]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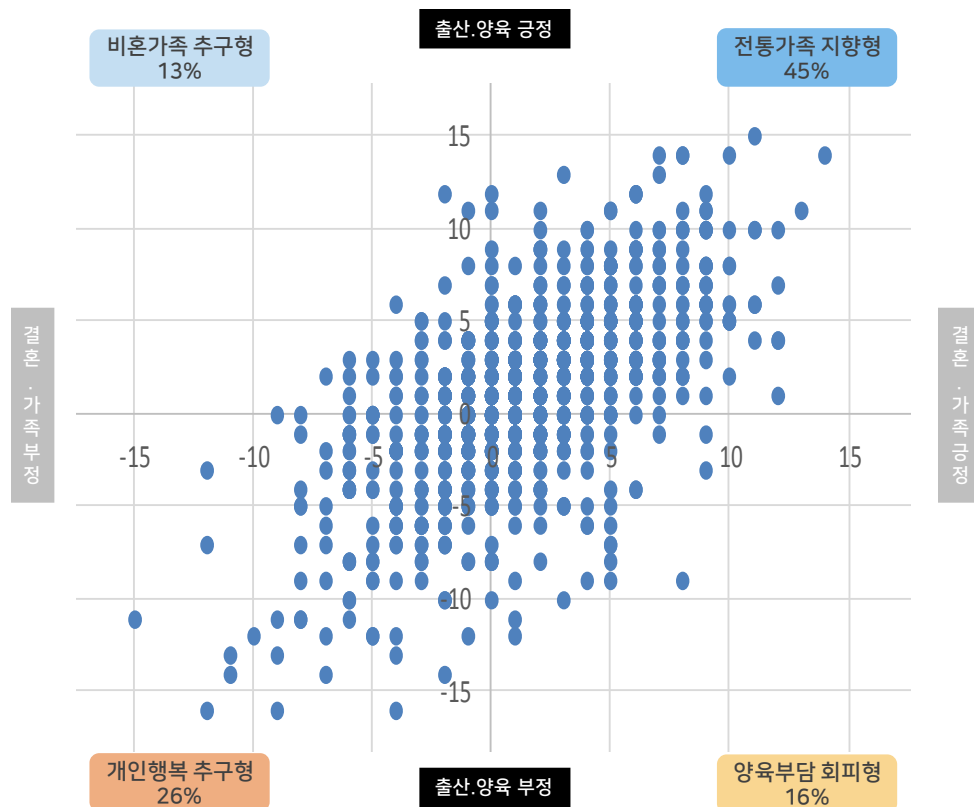
※ 케이스탯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방법론 소개

- ▶ 케이스탯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결혼·가족의식과 출산·양육의식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좌표 방식을 시험적으로 개발함
 - 결혼·가족의식은 X축에 놓고, 출산·양육의식은 Y축에 놓았음
 - 케이스탯은 이번의 시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 X축을 이루는 결혼·가족의식 관련 문항을 8개 설계하고, Y축의 출산·양육의식 관련 문항도 동일하게 8개를 설계함
- ▶ X축과 Y축 각 질문 문항은 +값을 갖는 질문과 -값을 갖는 질문으로 각각 4개씩 같은 비중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에 부여된 수치를 모두 합하면 응답자의 좌표(X축 값과 Y축 값)가 생성됨
 - 각 질문에 대한 응답에 부여된 수치는 아래와 같이 동일함
 -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2), ② 동의하는 편이다(+1), ③ 보통이다(0),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1), 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2)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값을 갖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위 응답수치가 그대로 적용되나 -값을 갖는 질문에 대한 응답수치는 +와 -가 반대로 적용됨
- ▶ **X축(결혼·가족의식) 관련 질문과 각 질문에 부여된 +, - 값은 다음과 같음**
 - 1)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다 (+ X)
 - 2)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배우자 가족까지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다 (- X)
 - 3) 노년기를 생각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든든하다 (+ X)
 - 4) 나 혼자만의 행복을 생각하면 구태여 결혼할 필요는 없다 (- X)
 - 5) 결혼을 하면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 있어 혼자 별 때보다 삶이 빠르게 안정된다 (+ X)
 - 6) 우리 사회에서 직장이나 집안 환경이 나쁘면 결혼하기 어렵다 (- X)
 - 7) 결혼을 하면 혼자서 잘 못하는 일(무거운 짐 들기, 요리 등)을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어 좋다 (+ X)
 - 8) 결혼 후 맞벌이 부부라도 가사 일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 X)
- ▶ **Y축(출산·양육의식) 관련 질문과 각 질문에 부여된 +, - 값은 다음과 같음**
 - 1)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으로 내 개인적으로도 값진 경험이다 (+ Y)
 - 2) 부부가 결혼 생활을 즐기려면 애를 낳으면 안된다 (- Y)
 - 3) 결혼을 했다면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 (+ Y)
 - 4) 애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면 애 낳기가 주저된다 (- Y)
 - 5) 나를 닮은 애가 세상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행복하다 (+ Y)
 - 6)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Y)
 - 7) 정부가 출산과 양육비를 지원해 주니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 (+ Y)
 - 8) 애를 키우느라 내 사회적 경력이 단절될 것을 생각하면 걱정된다 (- Y)
- ▶ 앞서 4개의 가치관 유형별 응답자 비중은 이러한 각 개개인의 좌표값을 하나 하나 더한 수치임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좌표 현황

※ 국민들, [전통적 가족지향형]과 [개인행복 추구형] 간 대각선 분포

- ▶ 본 조사결과 국민들의 좌표는 크게 [전통적 가족지향형](결혼·가족 긍정, 출산·양육 긍정)과 [개인행복 추구형](결혼·가족 부정, 출산·양육 부정)을 축으로 대각선으로 분포됨
- 앞서 가치관 유형별 국민 비중에서 보듯 [전통적 가족지향형]이 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행복 추구형]이 26%, [양육부담 회피형] 16%, [비혼가족 추구형] 13% 순임
- ▶ [전통적 가족지향형]은 물론 [개인행복 추구형]도 해당 4분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민들 사이에서 확고한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에 비해 [양육부담 회피형]과 [비혼가족 추구형]은 좌표의 중앙(X축 0, Y축 0)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가치관으로 보임
- 특히 [비혼가족 추구형]은 좌표 중앙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해 비중면에서나 강도면에서 약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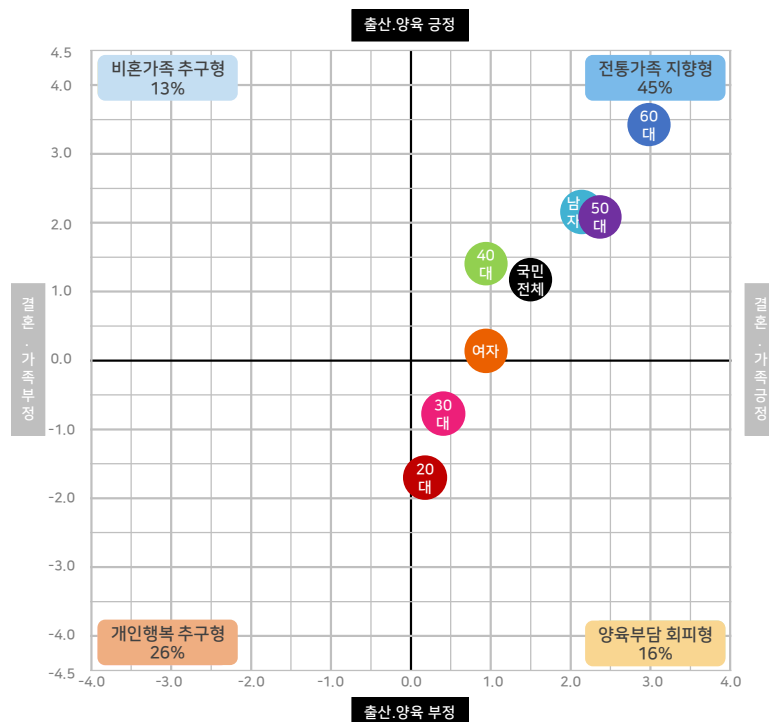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개별 항목의 응답 비중만을 보는 것은 양적 측면은 확인 가능하지만 질적 측면은 살펴보기 어려움
- ☑ 이에 비해 X축, Y축 적용에 따른 좌표 설정 방법론은 가치관의 양적 측면과 더불어 질적 측면까지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론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됨

※ 국민전체 및 성별, 연령별 평균 좌표 : 20대와 60대의 거리 가장 멀어

- ▶ 국민전체의 평균 좌표는 (1.5, 1.2)로 [전통가족 지향형]의 하단 부분에 위치함
 - 결혼·가족에 대한 긍정성에 비해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성이 다소 약함
-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전통가족 지향형]이 강한데 비해 여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좌표(2.2, 2.1)와 여성의 좌표(0.9, 0.2) 간의 거리는 국민전체 평균 좌표를 중간에 두고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음
 - 남녀간의 거리의 차이는 결혼·가족에 대한 인식 차이(X축)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차이(Y축)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통가족 지향형] 성향이 가장 강한 연령대는 60대(3.0, 3.4)이고, 가장 약한 연령대는 20대(0.2, -1.7)임
 -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하향하고 있는 양상임
 - 특히 20대와 30대는 [전통가족 지향형]에서 이탈해 [양육부담 회피형]에 자리하고 있어, 통계청 실증 조사에서 나타난 나이가 어릴수록 출산율이 낮은 현실을 반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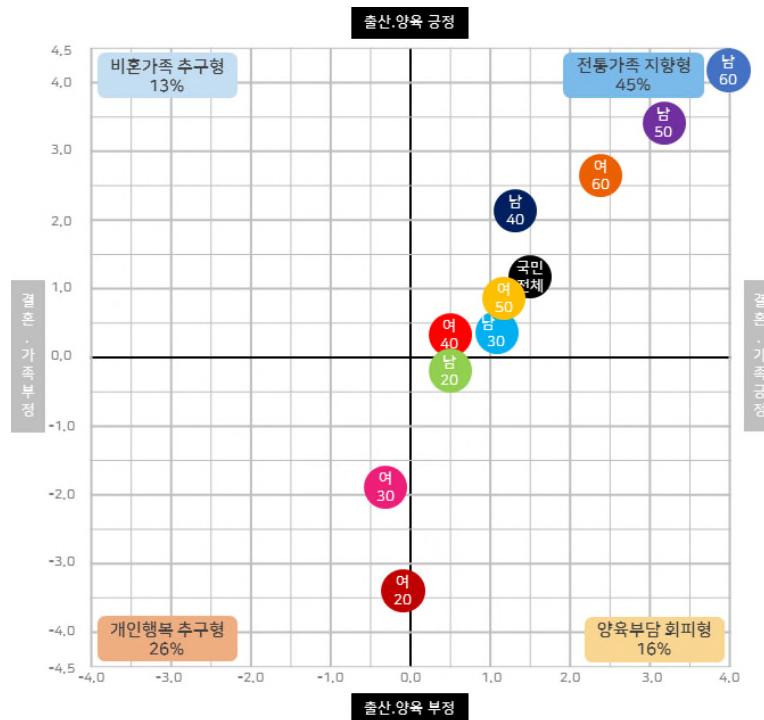


Kstat Point

- ☑ 남녀 간의 좌표 차이를 볼 때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데, 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주로 여성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 우리 사회는 여전히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몫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임
- ☑ 연령별 평균 좌표에서도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보다 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연령층이 긍정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
 - :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부정적인 위치에 자리하는 등 가치관 차이가 큰 상황임

※ 성/연령별 평균 좌표 : 남자 60대와 여자 20대 간 거리 매우 멀어

- ▶ 성/연령별로 평균 좌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가족 및 출산·양육에 부정적인 방향, 즉 대각선 방향으로 하향하는 양상임
- 남자의 경우 남자 60대가 [전통가족 지향형]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쪽에 위치함
-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자 60대가 [전통가족 지향형]의 상단에 위치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대각선 방향으로 하향 위치하고 있음
- ▶ 또한 남녀 간의 차이에 따라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좌표 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남자 60대와 여자 60대 간에도 좌표 위치에 차이가 있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여자들은 결혼·가족 및 출산·양육에 대해 부정적임
- ▶ 성/연령별로 가장 거리가 먼 계층은 남자 60대와 여자 20대임
- 남자 60대는 가장 강한 [전통가족 지향형]을 보이는데 비해 여자 20대는 [개인행복 추구형]에 위치해 모든 면에서 가치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자 30대 역시 [개인행복 추구형]에 위치해, 남자 60대와의 가치관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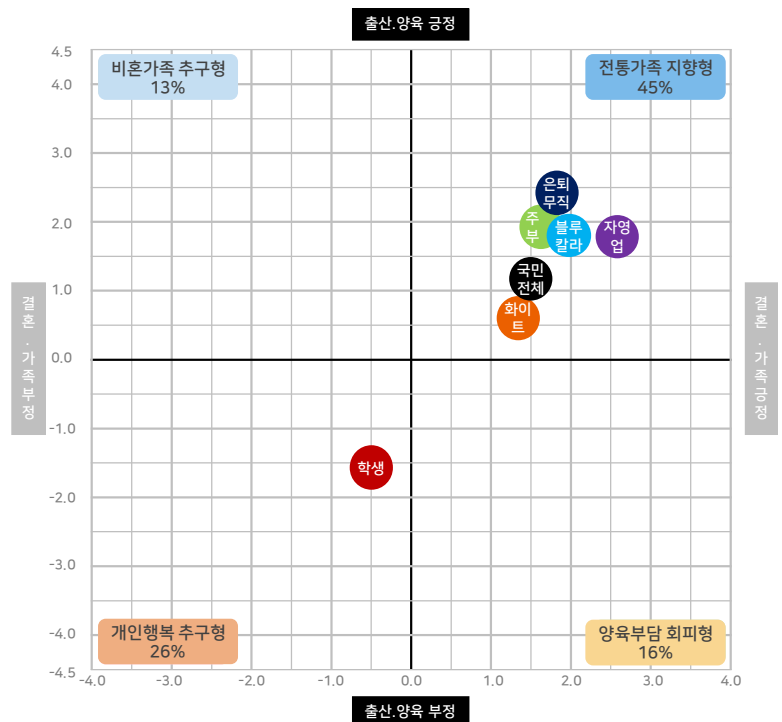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남녀 간의 좌표 위치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여자가 대각선 아래 방향에 위치함
- ☑ 이는 같은 연령대라도 결혼·가족 및 출산·양육에 대한 남녀 간 가치관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가부장적 사회분위기'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임
- 즉,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가부장적 영향력이 낮아지지만, 여전히 같은 연령층 내에서 여자가 느끼는 영향력은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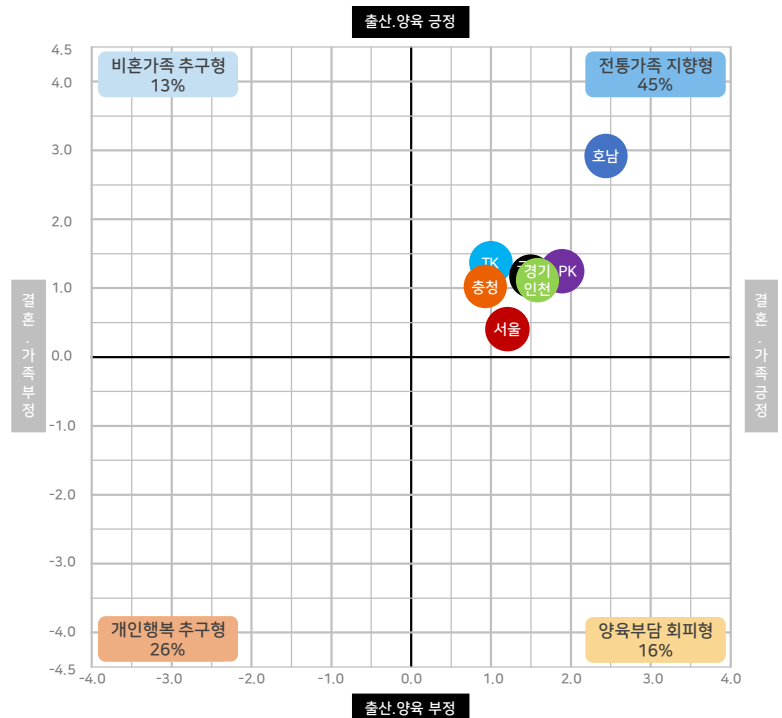
※ 직업별 평균 좌표 : 학생계층만 유일하게 [개인행복 추구형] 위치

- ▶ 직업별 평균 좌표를 살펴보면 국민전체 좌표를 중심에 두고 대각선 상단에는 은퇴.무직자,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등이 위치함
- 이들은 큰 차이 없이 [전통가족 지향형]에 자리하고 있음
- ▶ 국민전체 좌표의 대각선 하단에는 화이트칼라 종사자와 학생 계층이 위치함
- 특히 학생 계층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 많은 거리를 두고 [개인행복 추구형]에 자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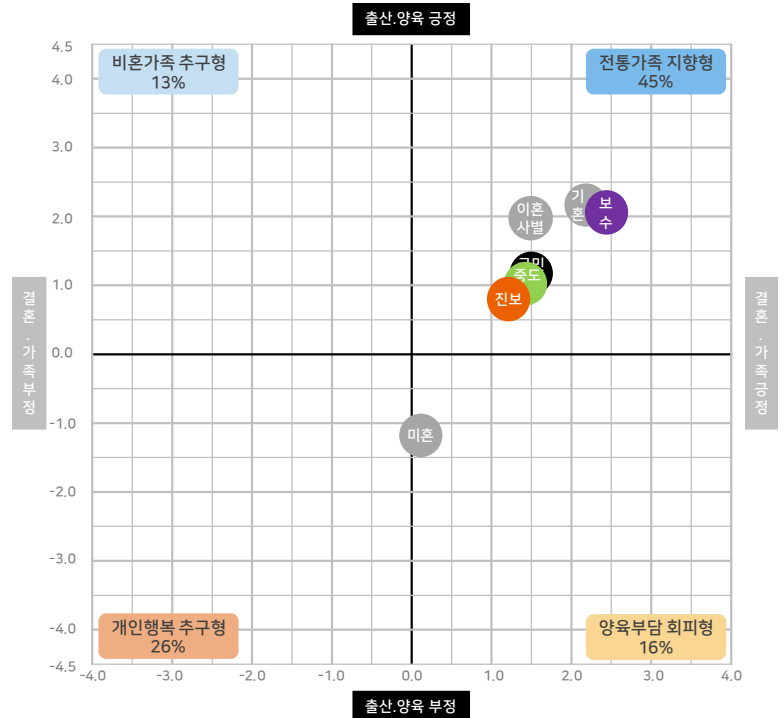
※ 지역별 평균 좌표 : 호남지역이 [전통가족 지향형] 특히 강해

- ▶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지역의 평균 좌표가 국민전체와 비슷한 위치에 분포되어 있음
- 즉, 지역 간 가치관 차이가 크지 않음
- 상대적으로 서울지역이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 정도의 차이임
- ▶ 다만, 호남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대각선 상단에 위치해 [전통가족 지향형]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이념성향별 평균 좌표 : 큰 차이 없는 가운데 보수층 [전통가족 지향형] 높아

-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평균 좌표를 살펴보면 중도층과 진보층은 거의 차이가 없는 가운데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대각선 상단에 위치함
- 즉,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전통가족 지향형] 경향이 강함
- ▶ 한편, 혼인상태별 평균 좌표를 살펴보면 기혼 및 이혼.사별계층은 [전통가족 지향형]에 위치하는데 비해 미혼계층은 큰 거리를 두고 대각선 하단에 위치해 있음
- 미혼계층은 출산·양육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양육부담 회피형]과 [개인행복 추구형]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음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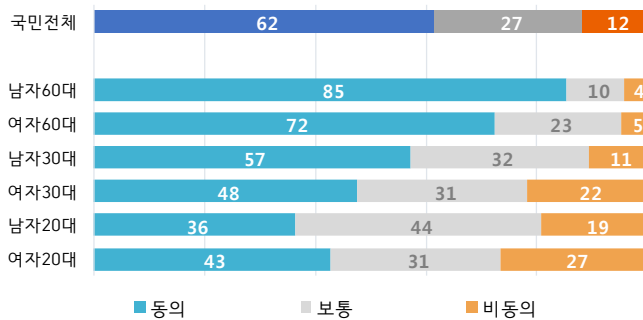
- ☑ 결혼과 출산 관련 가치관은 직업이나 지역, 주관적 이념성향과는 다른 층위의 가치관으로 보임
 - : 정치.사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직업별, 지역별,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 비해 결혼과 출산관련 가치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 : 보고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종사자 고용별(정규직, 비정규직 등), 가구소득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 결혼과 출산 관련 가치관은 남녀 간 입장 차이이고, 이는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문화에 대한 태도 때문으로 분석됨
 - : 즉,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 결혼생활은 '시댁' 위주가 되고, 가사는 여성이 맡고, 출산에 대한 책임도 여성이 지며, 양육 역시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떠넘겨지는 현실에 대한 여성계층의 불만이 주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보임
 - : 상대적으로 남성계층은 이러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 연령별 차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연령대의 남녀 간 뚜렷한 차이를 직시할 때 부차적 요인으로 판단됨
- ☑ 저출산 문제는 국가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가부장적 문화가 유지되는 한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 '양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한 국민 모두의 인식전환을 이룰 때만이 저출산 문제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지적임

▣ 결혼과 가족의식에 대한 세부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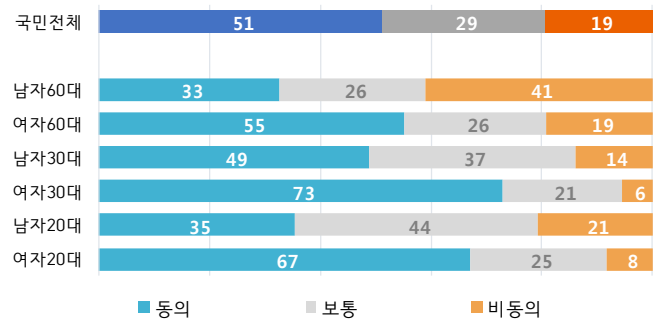
▶ '결혼과 가족의식' 관련 좌표 추출을 위해 사용한 개별 문항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결혼해 가족 이루는 것 행복' 62% / '배우자 가족 챙기는 것 부담' 51%

'결혼하고 가족 이루는 것은 행복한 일'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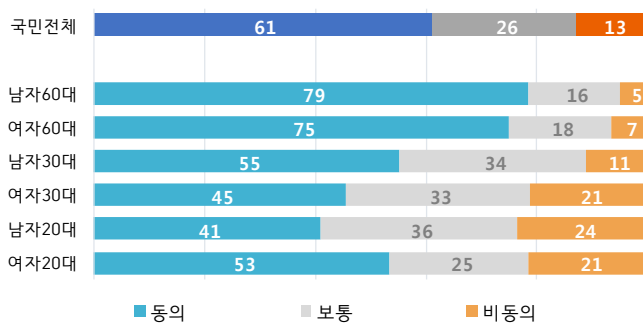


'결혼했다고 배우자 가족 챙기는 것 부담'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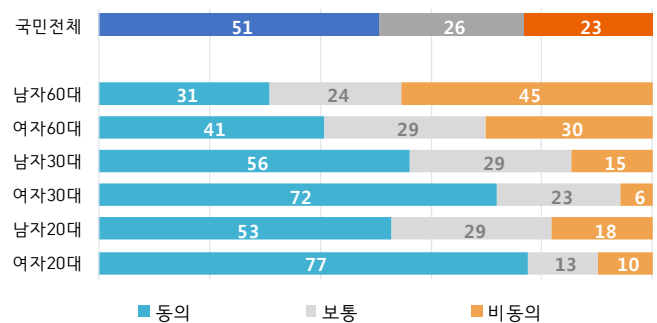


※ '노년기 생각 시 결혼 든든' 61% / '혼자 행복 생각하면 결혼 불필요' 51%

'노년기 생각하면 결혼 든든'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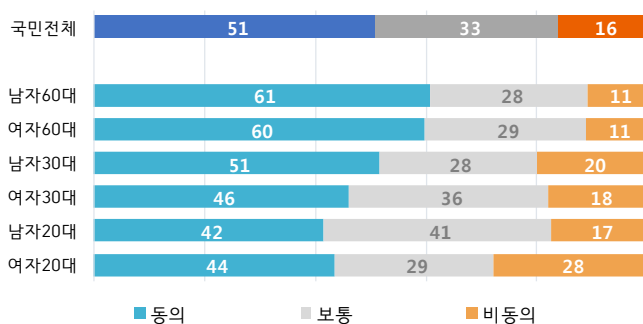


'나 혼자 행복 생각하면 결혼 필요없다'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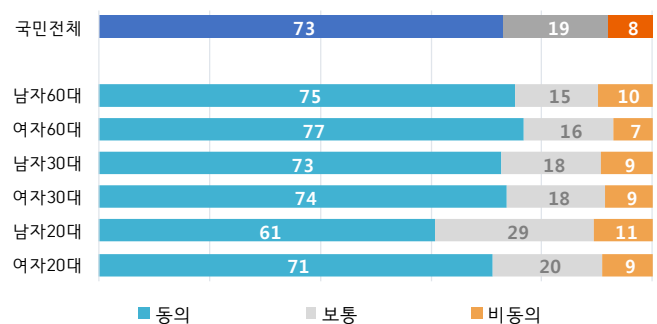


※ '결혼 시 맞벌이로 혼자보다 안정돼' 51% / '직장·집안 나쁘면 결혼 어려워' 73%

'결혼 시 맞벌이로 혼자보다 삶 안정된다'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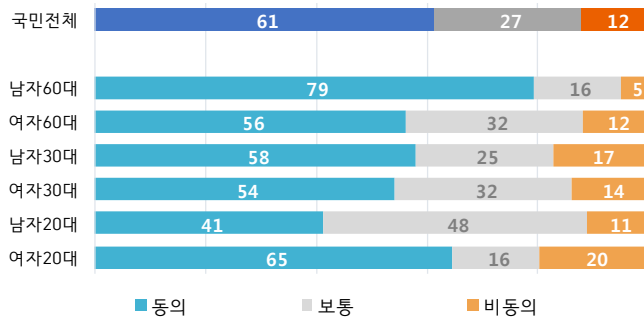
'직장·집안환경 나쁘면 결혼 어렵다'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 ‘혼자 못하는 일, 배우자와 함께 해 좋아’ 61% / ‘맞벌이라도 가사일은 여성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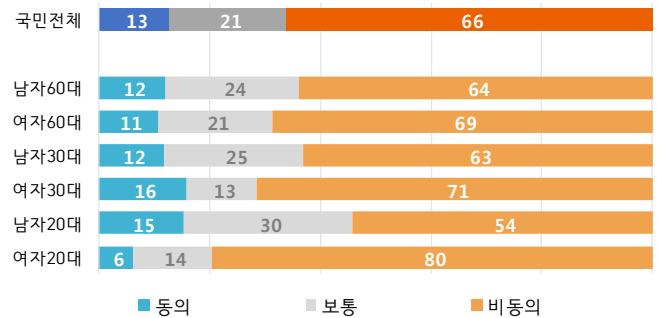
‘결혼 시 혼자 잘못하는 일 배우자와 함께 해 좋다’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맞벌이 부부라도 가사일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해야’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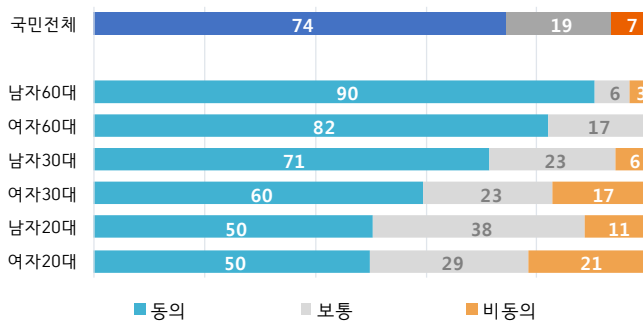
- ☑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과 출산’ 관련 가치관은 남녀 간 차이가 핵심 요인이기에 직업별, 지역별, 주관적 이념성향별 등의 별도 분석은 생략함
- ☑ 가치관이란 개인이 어떤 대상이나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판단기준으로, 일부 특정 의견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할 경우 오류에 빠지기 쉬움
 - : 예를 들어, 질문 중에 ‘결혼 후 맞벌이 부부라도 가사일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살펴보면 국민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13%에 불과함
 - :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가부장 사회가 아니라 양성평등 사회라고 판단할 수 있음
 - : 그러나 문항 중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배우자 가족까지 신경쓰고 챙겨야 하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국민전체적으로 51%임
 - : 성/연령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30대 49% vs 여자 30대 73%, 남자 20대 35% vs 여자 20대 67%로 남녀 간 편차가 큰데, 이는 결혼 시 여성들이 ‘시댁’에서 받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임
- ☑ 이렇듯 이번 조사의 의미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의견으로 개개인의 가치관을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질문의 결과로서 개개인의 종합적인 가치관을 측정한 데 있음

출산과 양육의식에 대한 세부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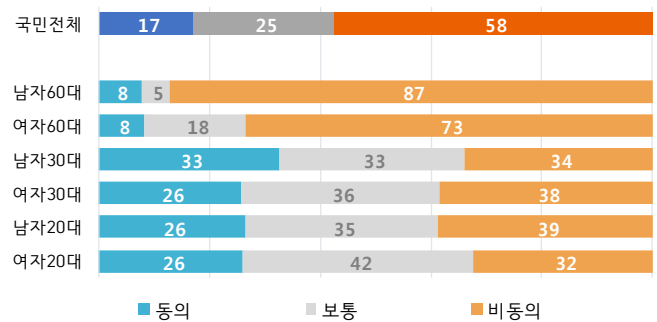
▶ '출산과 양육의식' 관련 좌표 추출을 위해 사용한 개별 문항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모되는 것 값진 경험' 74% / '결혼 즐기려면 애 안 낳아야' 17%

'부모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값진 경험이다'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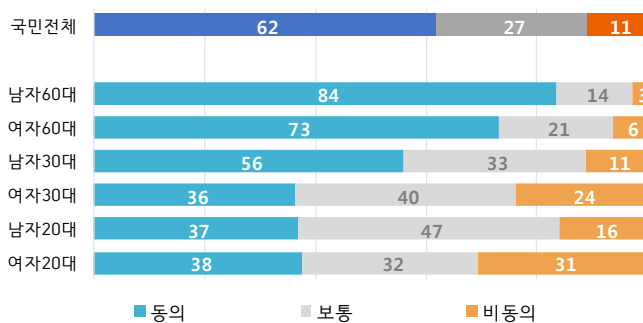


'결혼 즐기려면 애 낳으면 안돼'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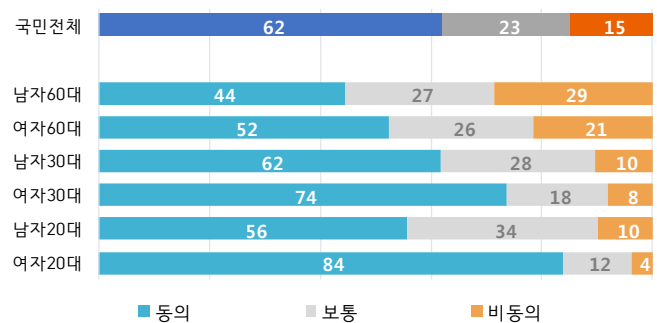


※ '애 낳는 것이 가정생활 도움' 62% / '애 키우는 비용, 애 낳기 주저돼' 62%

'결혼했다면 애 낳는 것이 가정생활 도움'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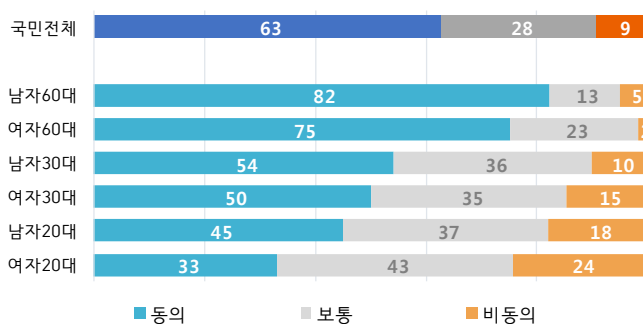


'애 키우는 비용 생각하면 애 낳기 주저된다'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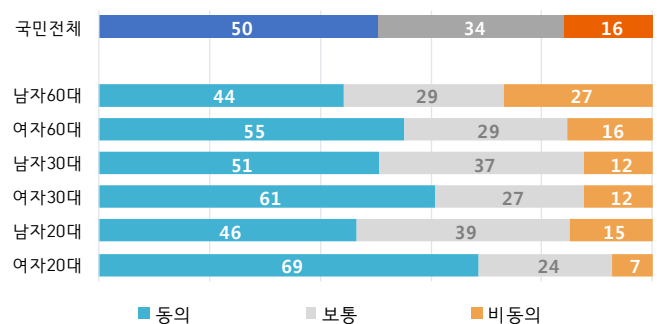


※ '나 닮은 애 있다는 것 행복' 63% / '아이 행복하게 자랄 것 생각 안돼'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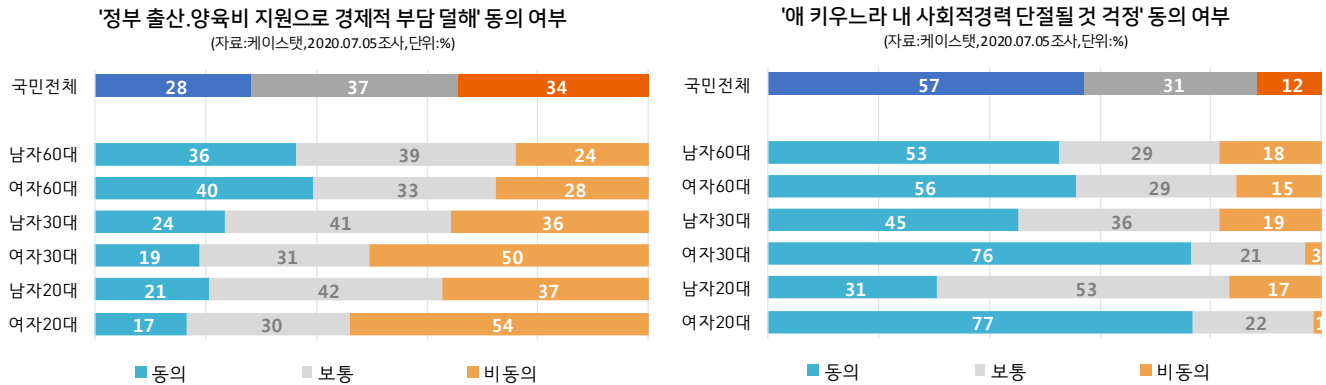
'나 닮은 애가 세상에 있다는 생각만으로 행복'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우리사회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거라는 생각 안들어'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 2020.07.05 조사, 단위:%)



※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덜해' 28% / '애 키우느라 경력 단절 걱정' 57%



Kstat Point

- ☑ '출산과 양육의식' 관련 개별 항목 중 주목되는 내용은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임

 - : 이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국민전체적으로 50%이고, 여자 30대는 61%, 여자 20대는 69%로 상대적으로 높음
 - : 구체적인 이유는 질문하지 않았기에 알 수 없지만, 여성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출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이 됨
 - : 이렇듯 출산과 양육은 단순히 개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사회적 선택의 영역임
 - : 출산과 양육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개인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정부의 각종 출산·양육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영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임
 - : 프랑스의 경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이 연장선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은 '정부가 출산과 양육비를 지원해 주니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항목임

 - : 이에 대한 동의는 국민전체적으로 28%에 그치고, 여자 30대는 19%, 여자 20대는 17%에 불과함
 - : 출산과 양육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민 개개인을 지원하고, 특히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
 - : 국민들이 원하는 것, 특히 여자 20대와 30대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 완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양성평등 사회로의 진입)에 있음이 재차 강조되는 지점임

조 사 개 요

조 사 기 간

2020년 7월 2일(목) ~ 7월 5일(일)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 사 기 관

케이스탯리서치

표 본 추 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리서치 K-패널

유 효 표 본

총 1,027명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06\%p$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0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케이스탯은 조사·통계·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매월 2회 “**Kstat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Kstat Report**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 **Kstat Report**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 **Kstat Report**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 **Kstat Report**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 **Kstat Report**는 매월 2,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 **Kstat Report**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Kstat Report 10호는 “2020년 08월 13일”에 발행됩니다.